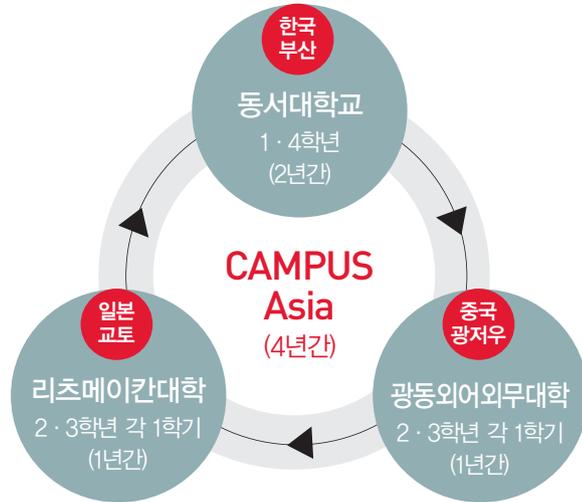


동서대학교 CAMPUS Asia 국비장학생 프로그램

동서대학교의 CAMPUS Asia 국비장학생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를 양성하는 학부생을 위한 4년간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동서대(韓)-리츠메이칸대(日)-광동외어외무대학(中) 3개 대학을 이동하며 수업을 받고, 졸업 전 해외 인턴십도 제공받게 됩니다.

한·중·일 이동식 국제
공동캠퍼스(동서대 학생의 경우)



참가학생 : 각 대학 매년 20명 선발

프로그램 내용

4년간 해외프로그램 참가

- 1학년(파견전교육) : 자국에서 일본·중국에 대한 기초교육
- 2·3학년(이동식 국제 공동캠퍼스) : 중·일 양국 캠퍼스에서 2년간 학습
- 4학년(졸업 및 취업준비과정) : 자국에서 졸업논문 집필, 해외인턴십

참가자 특전

CAMPUS Asia 장학금지원

- 4년간 전액장학금 혹은 반액장학금 지원
- 일본·중국 국제항공료 및 해외 체류비 일부 지원

졸업시 3국 대학의 공동수료증 수여

참가 자격

- 2016년 동서대학교 입학자 중 일본어학과와 중국어학과 의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생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입학 성적 및 각종 자격증 유무
- 2차 필기시험 : 어학능력 및 사고력
- 3차 인터뷰 : 인성 및 목표의식



동서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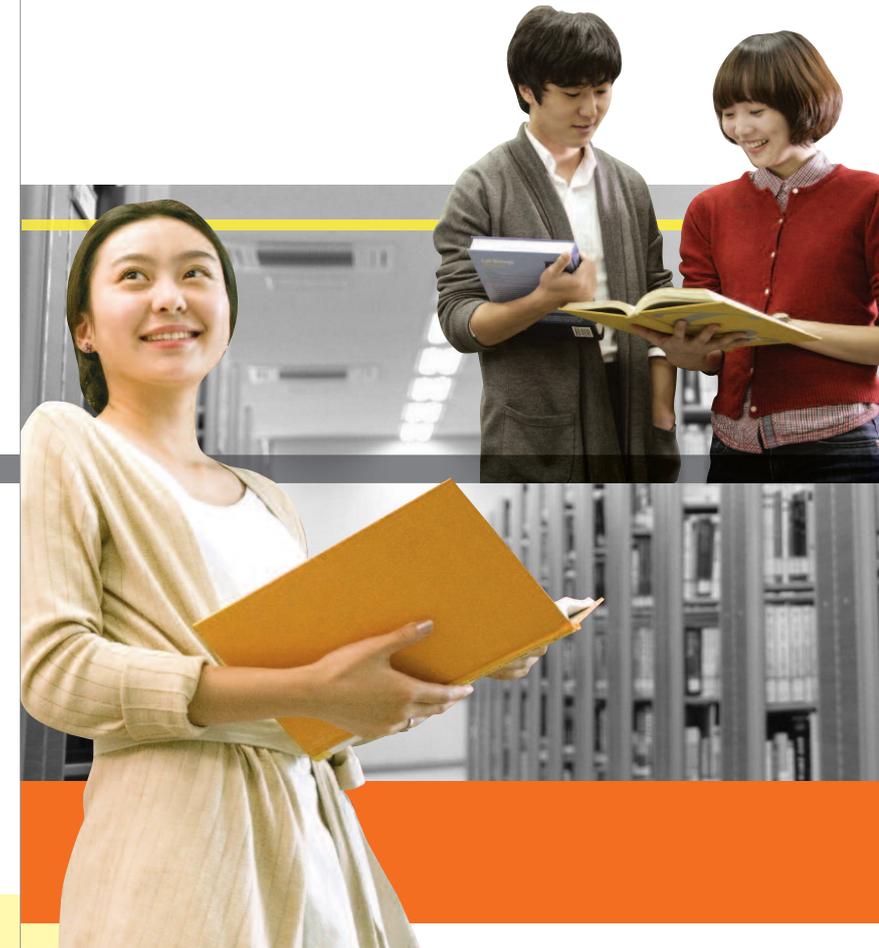
리츠메이칸대학



광동외어외무대학

DONGSEO UNIVERSITY CAMPUS Asia

동서대학교 CAMPUS Asia 국비장학생 프로그램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CAMPUS Asia 사업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국제협력관
Tel. 051)320-2155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의 차세대 인문학 리더를 양성합니다

장제국(張濟國) 동서대 총장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중일 3국의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중일 인문학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젝트의 취지가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에서도 동시에 높이 평가받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하는 한국 동서대(東西大)와 중국 광둥외어외무대(廣東外語外貿大), 일본 리츠메이칸대(立命館大)는 이미 5년 전부터 원격 화상 강의를 공동으로 운영해오면서 많은 성과를 냈으며, 그에 대해 한중일 3개국 교육부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3개 대학은 지금까지의 실적과 신뢰를 기반으로 동북아 시대를 이끌어가는 '동북아시아'를 양성하고 미래지향적인 3개국 관계를 구축해 가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요시다 미키오(吉田美喜夫) 리츠메이칸대 총장



어학연수나 유학의 차원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인재를 육성합니다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은 대학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어학연수나 유학 정도의 차원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하나의 해답이 이 프로젝트라고 확신합니다.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경험하고, 국경과 문화의 차이를 초월해 아시아 친구들과 밀접히 시간을 공유하고 학업과 연구,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졸업 후에도 다국간 우호관계를 유지시켜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지금까지 3개 대학이 쏟은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고, 영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웨이허(仲偉合) 광둥외어외무대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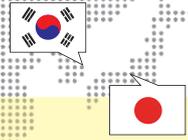


한중일 3개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에 밝은 차세대 리더를 키우겠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한중일 연대 프로젝트이며, 3개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에 밝은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은 3개 대학의 공동 목표입니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첫 걸음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둥외어외무대도 이번 프로젝트의 한 날개를 담당하고 있고, 물적 인적 자원 등 전력을 쏟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제갈공명의 지혜가 생긴다'는 중국의 격언처럼 중국과 한국, 일본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서대학교 CAMPUS Asia 국비장학생 프로그램

한중일 3개국 정부 공동 추진사업 "CAMPUS Asia"에 동서대 프로그램이 2016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국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한중일 대학생 3국서 강의듣고 학위 판다

캠퍼스아시아 내년 시범운영 10개 사업단 100명 선발

한중일 캠퍼스아시아 참여 사업단

한국	중국	일본	프로젝트
고려대	푸단대	고베대	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중일 교육 협력 프로그램
동서대	광둥외어외무대	리츠메이칸대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을 위한 한중일 공동운영의 트라이앵글 캠퍼스 구성
부산대	상하이교통대	규슈대	에너지-환경 과학기술 글로벌인재육성 협동대학원 교육프로그램
서울대	베이징대	도쿄대	BESETO 국제학 및 공공정책학 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
서울대	베이징대	히토쓰바시대	아시아 비즈니스 리더 프로그램(ABLP)
성균관대	지린대	오카야마대	동아시아 현안 문제 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차세대 핵심인재양성 프로그램
성균관대·서울대	련민대·칭화대·상하이교통대	나고야대	동아시아 공동법 형성을 향한 법적, 정치적 인식 공동체의 인재양성
포스텍·서울대	난징대·상하이교통대	나고야대·도호쿠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아시아 교육협력의 시각: 화학·소재 과학기술영역의 개척
KAIST	칭화대	도쿄공업대	TKT 캠퍼스 아시아 컨소시엄
KDI국제정책대학원	칭화대	국립정책연구대학원	동북아시아 정책학 컨소시엄

내년부터 매년 100명의 국내 대학·대학원이 중국과 일본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중국 교육부, 일본 문부과학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사업단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등 8개 대학·대학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단에 포함됐다.

캠퍼스 아시아는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대학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의된 후 추진됐다. 3개국 대학 3곳이 짝을 지어 하나의 사업단을 꾸리면 각국 정부가 사업단에 재정 지원을 한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3개국 대학을 옮겨 다니며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공동·복수 학위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국제대학원,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일본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이 동진 사업단은 'BESETO 국제학 및 공공정책학 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각 대학에서 1년씩 공부한

뒤 졸업할 때 최대 3개 대학의 석사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동서대 광둥외어외무대 리츠메이칸대 사업단의 '동아시아 인문학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트라이앵글 캠퍼스 구성' 프로젝트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학생들은 다른 나라 대학으로 이동하며 1학기씩 강의를 듣고 학점을 인정받는다. 사업단은 참여 학생들에게 졸업 전 3개월의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매년 사업단별로 10명씩 선발한다. 사업단이 10개이므로 각국이 100명씩 총 300명의 한중일 학생들이 매년 캠퍼스 아시아에 참여하게 된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시범사업단에 포함된 한국 대학에 사업단별로 연간 학생교류비용 1억2400만 원, 프로그램 개발비용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학생은 80만 원 이내의 왕복 항공료와 매달 80만~90만 원의 체재비를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비는 국내 대학에 내면 된다. 구체적인 선발 방법은 교과부와 대교협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